

W_F_622

서천꽃밭 꽃감관

2018년 10월 31일,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좌사남(여, 1930년생, 제주시 외도1동)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 제주4·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원진국과 김진국 대감이 한 고을에 살고 있는데 김진국 대감은 가난하고 원진국 대감은 부자여도 모두 자식이 없었다. 둘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 원진국 대감은 딸인 원강아미를 김진국 대감은 아들인 사라도령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 사돈하기로 하여 둘은 결혼하였다. 원강아미는 사라도령이 하늘에서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오라는 명을 받고 가는데 임신한 몸으로 따라간다. 가는 길에 자신이 도저히 갈 수 없으니 자현장자 집에 종으로 팔아 달라고 부탁하여 그 집에서 아들 한락궁이를 낳았다.

아이는 자라서 부친을 찾아 떠났고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아서 죽게 된다.

한락궁이는 많은 고난을 겪고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아버지 사라대왕을 만나고 환생꽃을 얻고 와서 어머니 원강아미를 살렸다. 한락궁이는 도령차사가 되고 원강아미는 저승 아기를 돌보는 저승 어미가 되었다.

[제보자] 거 원진국 대감. 김진국 대감이 한 고을에 살고 이제 저. 한 서당에 글을 읽고 경혜영 한 동네 사는다.

[조사자] 벗이로구나예?

[제보자] 그 김진국 대감은 막 가난허여.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맥 줄곡 신 삼곡 허영 그 날 그날 입곡 허곡, 원진국 대감은 부자로 잘 살아. 부자로 잘 살양 원진국 대감도 자식이 없고 이제 김진국 대감도 자식이 엇어. 거난 이제 그래도 한 서당에 글 읽고 헤나니까 정자낭 그늘 아래서 바둑을 뒀이난 넘어가는 대수중이 그디 오랑 시난 이제 원천각이렌 헌 거는 책

“원천각도 가졌느냐? 화주역도 가졌느냐?”

허난

“원천각, 화주역 다 가졌수다.”

허난

“우리 두 대감이 남녀 간에 생불이 엇이니까 아들이나 뜰이나 어떻 허문 날 수 잇이니?”

허난 책을 걷어 봐그네

“우리 절간이 수덕 좋고 영겁이 좋으난 우리 절간으로 오랑 수륙을 드리민 아들이나 뜰이나 낳으쿠다.”

허난 이제 수륙을 드리레 가젠 허난 수륙재도 얼마나 가정 가넨 ‘대병리 소병리 바리바리 실경 옵서.’ 허난 원진국 대감은 부재로 사니까 대병리 소병리 바리바리 실엉 가고 김진국 대감은 먹엉 살 수 엇언. 신 삼양 팔고 허멍 할 거 엇이 난 양 끼니 먹었던 거 한 끼니 썩 줄여가지고 한 푼이 모안. 한날 한시에 절간에 수륙드리레 가멍

“우리 아들 낳으나 뜰을 낳으나 사돈허기로 협시다.”

경 약속을 허기로 헤그네 석 달 수륙드령 오랑 난 것이 김진국 대감은 한댓살 추령 가난 불쌍허던 허영 아들 나게 허고, 원진국 대감은 먹당 남은 걸로 수륙을 허니까 많이 실경 가도 뜰을 내온 거라. 원진국 대감 뜰은 원강아미, 김진국 대감 아들은 사라도령, 허영 두 살, 열다섯, 십오 세가 나니까 旱루는 비도 오고 심심허니까 멱 주으멍

“아버지 옛말 골읍서.”

“옛말 골을 거 없다.”

“들은 말이나 골읍서.”

“들은 말도 없다.”

“살아난 역사나 골읍서.”

“느 낳기 전에 원진국 대감허고 수륙드리레 가멍 아들을 낳으나 뜰을 낳으나 사돈 허기로 약속햇저마는, 그 집이 강 뜰 줍센 할 수가 잇이냐. 우린 먹엉 살 길이 없고 그 집인 부자로 사니까 그 집이 뜰 줍센 할 수가 없다.”

“그래도 남자 대장부가 일구이언이 잇수가. 내일라그네 푸른 창옷 입고 허영 ‘옛날에 약속한 일이 잇지 않으우꽈?’ 허영 골아봄서.”

웃 앗앙 입고 뒷녁날은 올레에 강 돌당 들어가지 못허영 그냥 나온 거라.

“강 뭣이엔 골읍디가?”

허난

“들어가지 못 헷저. 부끄루왕 우린 못 살고 그단 잘 사니까. 들어가지 못햇저.”

“낼랑 또 가봄서.”

뒷녁날은 또 들어가지 못허영 올레에 강 돌당 그냥 돌아오곡 허난 원강아미
원진국 뜰이

“아바님, 무사 김진국 대감은 올레에 앗당 가고, 올레에 앗당 가고 했우가?”

“내불라. 느 낳기 전에 절간에 수륙드리레 가멍 약속한 일이 싫주마는 그 집에
강 뭣 먹엉 살 거니. 약속한 일이 잊어도 모른 척허영 내불라.”

“아이고, 아버님. 잘살아도 나 복, 못살아도 나 복이난 낸랑 오랏건 허급해붙
서.”

삼일째 가난

“이레 들어옵서. 들어옵서, 어떻 허영 옵디가?”

“그때 수륙드리레 갈 때 약속헌 일이 잊지 않으우꽈?”

허난

“어서 경협서.”

허영 허급을 허연. 허급을 허영 원강아미하고 도령하고 결혼해그네 원래 초막
에서 따로 살린 거라. 따로 살리난 한 해 두 해 살당 보난 원강아미 얘기 배엉
배는 찰떡같이 불고, 옥황이 서불로 인간 할머님이 서천꽃밭디 꽃감관이 엇이난

“사라대왕을 꽃감관으로 청허라.”

허난 사라대왕 청허레 현관도사 내려온 거라. 현관도사 내려오난 내려오당 보
난 원강아미 물허벅 지엉 물 질례 가니까

“사라대왕 집이 어디만층이우꽈?”

허난

“절로 멀리 돌아그네 가민 사라대왕 집이우다.”

멀리 ?리천 샛담으로 물허벅 진냥 달려왕

“어디 곱아붙서. 현관도사 내렸수다. 곱아붙서. 곱아붙서.”

허영,

“남자 대갈 보라. 어떻 곱느니. 할 수가 없구나.”

허영 그말 떨어지자마자 현관도사 딱 산. 꽃감관으로 사라대왕 청했우던 허난
가게 되니까

“아이고, 낭군님. 나도 같이 강 죽으민 같이 죽고 살민 같이 살쿠다.”

허영, 삼 년에 한 번이나 오 년에 한 번이나 만날 거렌 허난 같이 가肯 허영
원강아미가 배불고 헤도 같이 나산 旱루 해천 걸으난 발도 병 나고 어육밭디 가
그네 어육풀이, 어육이렌 한 건 억새, 그 밧디 가그네 그 억새를 의지허영 오늘

밤 새영 가게. 어육밧디 강 억새에 의지허영 그날 밤 새는 것이 밝아가난 독소리
가 나. 독이 우난

“낭군님아. 저 독은 어디서 우는 독소리우꽈?”

허난 이 고을 자현장재 집 독소리렌. 또 ㅎ꼼 잇이난 독소리가 나난

“저 독소리 어디서 나는 독소리우꽈?”

허난

“이 고을 말년장재 집 독소리여.”

“아이고, 난 발병 낭 못 가크메 자현장재 집에 강 종으로 팔아됭 갑서.”

밝아가난 자현장재 집에 돌양 올레에 강 사그네

“아기 밴 종살이요.”

헌 거. 경허난 그 집이서 큰뜰아기 나고 보란

“아버님, 그 종 사민 우리 집 망허쿠다.”

두 번째 뜰 나왕

“그 종 사민 우리 집 망허ку다.”

세 번째 뜰 나고 보렌 허난

“아기 밴 종이라도 얼굴도 천하일색이고, 아바님 심심허믄 친구 벗이라도 헐만 허우다. 허난 뱃속의 아기는 은 댓냥 받고, 아기 어멍은 돈 백냥 받으肯 햅우다.”

돈 백 냥 줘그네 산 거라. 먼 올레에 종이난 따로 살린 거라. ㅎ루는 자현장자
가 들그락 들그락 들어가는 거라.

“개가 울없인가? 사람 모르는 개로구나.”

허영 야단 치난, 개가 아니라 자현장재가 들어완.

“어령허영 옵디가?”

허난

“는 아기 배고 헌 종이라도 얼굴도 곱고, 느영 담소 이리 왕 놀안 보라.”

“밴 아기 낳아그네 다서여섯 살 웨엉 막대기물 탕 동네 집에 놀레 뎅기는 모
모라 헙니다.”

경허난 나가난 다시 그 아기 나난 이름은 한락궁이라. 뜰을 낳으민 ‘한락댁이’.
아들 낳으민 ‘한락궁이’로 허렌 사라대왕이 가명 헤됭 가난 아들을 낳으난 한락
궁이라. 한두 살, 다섯 살이 나난 막댕이 물 탕 동네 집 놀레 다니난 또 자현장
자가 들그락 들그락 오라 가난

“아이고, 개가 오값구나. 요 개야, 저 개야, 개가 아닌 자현장재구나. 어떻허영

옵디가?”

“아이고, 느 종이라도 얼굴도 곱고 느광 심심허난 담소나 허영 오랑 가라.”

“우리 얘기 법은 밴 아기 나그네 열다섯 십오세 웨엉 쟁기질 밧갈레 뎅겨사.”

“경허라.”

허영 나가 분 거라. 열다섯 웨엉 밧 갈레. 한락궁이가 되어 가난 다시 오게 된
거 아니. 경허영 이제 자현장재 집 안부인신디 가그네

“두 번 자현장재 앗이난 물리쳤ين디 이번 한락궁이가 열다섯 살 십오 세 되난
또 오게 웨엇이난 오믄 뭐렌 굴양 물리칩니까?”

허난 안주인이

“다시 이번 갓거들랑 아래 들어옵서. 잘 오랏수다. 허영 한쪽 발 들여 놓건 세
상 하르방들 두들리는 거 덩드렁마께 잘 오랏수다 허영 한쪽 발 들여 놓건 팍
모사 불라.”

그추룩 시킨 거라. 한락궁이가 열다섯 십오세난 밧갈레 뎅겨 가난 또 흐루 저
녁 달그락 달그락 오는 거 아니.

“아이고, 잘 오랏수다. 이례 옵서.”

문 올양 한쪽 발 들여 노난 마께로 팍 모사불언.

모상 종년이 사람 죽염덴 허영 종년을 죽여사켜 허영 막 헤가난 족은뜰이

“아바님, 그 종 죽여 불민 우리 돈 백 낭도 일러불고 은 백 낭도 일러부난 버
력이나 시킵서.”

“무슨 버력 시키느니?”

“한락궁이랑 낮에라고네 낭 허영 오렌 허고 원강아미랑 낮이랑 비단 허영 밤
에랑 명주 닷 동 자으렌 협서.”

버력을 시켜 가난

“좁씨 닷 말을 정 가그네 밧 갈양 좁씨를 뿌려그네 다 벌려동 오라.”

허영 밧디 가난 좁씨 뿌령 벌려동 오난

“아이고, 나 멜망 아래 시들헤졌구나. 그 좁씨 다 줄영 오라.”

허먼 좁씨 줄이레 강 보난 개미들이 다 조팝을 물엉 속에 들어가 불었어. 말
그대로 채우지 못햇주게. 좁씨 일러불언. 경허영 들어오난 이제라고네 아이고 자
꾸 시켜 가난

“어머님, 아버지 간디 굽아줍서.”

“느네 아방은 자현장자 아니냐?”

“자현장자민 무사 우리 시킵니까?”

경허영

“올레 정주목이 느네 아방 아니냐?”

“그럼 간디. 오란디 인사가 엊수가. 어머니 콩이나 한 줌 볶아 줍서.”

“놈의 집이 종살이 콩이 어디 시니? 콩낭 놀아난 디 가그네 방울방울 줗어도
콩은 볶으쿠다.”

방울방울 줗엉 볶아 가난

“어머니, 올레에 누개 오랑 불렀우다. 올레 빨리 강 봅서.”

허난 올레 딱 나간 동안에 배숙이 남죽 콩 젓는 건 다 곱져 불엇어. 한락궁이
가. 딱 곱정 달려오랑

“어머니, 콩 깃우다.”

몬닥 배숙이 곱져 불엉 콩 다 어디 가 불엇어.

“손으로 확확 젓읍서. 콩 깃우게.”

젓어 가난 어멍 손이 어떻허니 어떻허니 허영

“아버지 간 디 골아줍서.”

허영

“이제 느네 아방은 서천꽃밭에 꽃감관으로 갓저.”

용얼레기 한 착 내어 주난

“범벅 세 덩어리만 헤 줍서.”

허영,

“남으 집 종살이가 범벅이 어디 시니?”

“소금장 혼나만 헤 줍서.”

허난 범벅 세 덩어릴 헤 주난. 소금장헤 주난

“어머닌 밤중에 들어그네 나가 떠나 불어도 어머니 목숨이 떨어져도 나 간 디
랑 곤지 맙서.”

허영 범벅 가정 천 리 만 리 간 거라. 한락궁이가. 아방 촛젠. 한락궁이는 역
으로 들인 자현장재 집에선 개를 막 몇 십 년 묵은 개를 질른 거라.

“천리동이야. 한락궁이 물어 오라.”

부지런히 걷당 보난 천리동이 개가 앞으로 강 탁 물젠 허난

“너도 계난 놈으 집. 나도 계난 놈으 집이난 범벅 한 덩어리 먹엉 돌아가라.”

허영 잘도 먹엉 물 먹으레 간 동안에 만 리를 나달련. 만 리 길을 가난 이 천

리둥이는 그냥 돌아온 거라. 그냥 돌아오난 ‘천리둥이가 한락궁이 못 물어 왔구나.’ 이제 만리둥이를 내놓은 거라. 걷당 보난 개가 앞으로 강 탁 물不尽 허난

“나도 기어나민 놈으 집, 너도 기어나민 놈으 집, 범벅 한 덩어리 먹엉 돌아가라.”

허영 범벅 한 덩어리 먹엉 그 개도 돌아와 불었어. 게난 막 뛰엉 가는 것이 이젠 저 연못. 큰 연못이 잇었어. 연못 가운데 버들낭이 잇이난 버들낭 위에 강 앗앙 보난 저승 아기들이 막 먹어난 사발, 박세기, 차롱착 다 들렁, 물 떠낳 꽃밭에 주렌 저승 어멍이 시키난 물 뜨레 다 온 거라. 게난 버들낭 위에 강 앗안 손가락을 이빨로 딱 씹으난 피가 또록 또록 물드레 떨어진 거라. 피가 떨어지난 아기들이 그 물을 떠당 꽃밭에 주난 꽃이 다 말라 죽어 가. 거난 꽃감관이 나왕

“어떠난 물을 떠당 꽃밭에 줘도 꽃이 다 말라 죽없이니?”

허난

“어떤 도령이 버드낭 위에 앗앙 부정을 젓수다.”

허난

“그 도령 불러 오라.”

불러당 도령 불러당 너 어떤 도령이냐. 꽃밭 물에 부정 주고 헷젠 허멍 이제

“아방국이 어디고, 어멍국이 어디냐?”

허난

“우리 성할아버진 김진국 대감, 외할아버진 원진국 대감이우다. 우리 아바진 서천꽃밭 판관이고.”

“너 이름은 뭐냐?”

“난 한락궁이우다. 우리 어머닌 원강아미우다.”

허난

“나 아들이 분명허구나.”

허영 내놓으렌 허난 용얼레기 한 착 내놓으난 아방도 맞추난 맞춰져.

“나 아들이 분명허구나.”

허영

“이제 너네 어멍은 자현장자 집에서 죽연에 갈기갈기 던져 불엇이네. 자현장자 집에 악성꽃 헤 가그네 멀망시켜 두고, 어멍이랑 번성꽃 헤가그네 살령 데령오라.”

허난 꽃밭에 가그네 자현장자 집에 싸움꽃, 웃음꽃, 멀망꽃 다 헤 놓고 어멍 살릴 꽃을 헤 놓고 허영 한락궁이 내려온 거라. 내려오난 자현장자 집에선

“아이고, 요놈 어디 강 죽지 안허연 살아 왔구나. 죽여살로구나.”

허난

“나 그동안 가그네 좋은 기술을 배워 왓이난 나 재주 봐그네 죽입서.”

일로 왕 다 모다 앉읍서. 다 앉으난 웃음꽃을 허난 다 모다정 웃는 거라. 싸움 꽃을 흡으난

“너 머리 놓으라. 나 머리 놓으라.”

싸우는 거라. 머리 매멍 싸우는 거라. 멀망꽃을 흡으난 몬딱 죽어 가난 족은풀 아기가

“아이고, 선생님. 날랑 살려 줍서. 살려 줍서.”

“니가 상전이지 난 종놈 아니가? 우리 어멍 어디 죽영 던졌이니?”

“머리빡은 청대왓에 발목 아래는 섯대왓에 던졌수다.”

허난 다 쫓어당 왕 어멍 머리빡 던져 분 디 고망으로 대가 나오고 콧구멍으로 도 대가 나오고 혈어도 대가 나오고 몬딱 대순이 나왕 대가 크는 거라. 게난 이제 은장도로 그 대를 다 잘라 두고 콧구멍 눈구냥 다 닦양. 어멍 조근조근 매어 당 이젠 어멍 살령 서천꽃밭에 데려갈 때 악심이 나니까 말젯아기 죽여 분 거라.

죽여뒹 갓이난, 꽃감관 사라대왕이 허는 말이 그 자현장자 말년 아기 살령 대령 왓이민 너영 부부간을 삼아그네 아버지 대신 꽃감관을 혈 건디 죽여뒹 와 부난 아이 돌아가는 도령차사가 됧젠했. 처녀나 총각이나 데령 가는. 원강아미는 저승아기들 밥 주고 물 주고 밥 아이 먹단 아기들, 한 달 두 달 배 안에 낙태, 유산된 아기들을 청버들낭 아래 늑정 청이슬 받아그네 어멍으로 원강아미는 들어서고, 한락궁이는 도령차사가 되고, 자현장재 말젯아기는 오꽃 한락궁이 손으로 죽여 부난 이제 자현장재 집 몬딱 망해 불고, 원강아미는 저승아기들 물 주고 밥 주고 뱃속에서 낙태한 얘기나 한 달 두 달에 죽은 얘기들 버들낭 아래 늑정 청이슬 받양 맥이고 다 저승어멍이영 헤그네. 한락궁이는 도령차사가 뛰고 헌 거.

[조사자] 잘도 진 거 잊어불지도 안허영 골앉우다예?

[제보자] 옛날에 심방 굿허는 디서 앗양 다 들어낫주. 이젠 잘 몰라.

- 핵심어: 원진국, 김진국, 사라도령, 원강아미, 서천꽃밭(서천꽃밭), 꽃감관(꽃감관), 한락궁이, 자현장자, 도령차사, 꽃밭(꽃밭), 아방(아버지), 버들낭(버들나무), 멀망꽃(멀망꽃), 악성꽃(악성꽃), 아들, 땔(딸), 좁씨